

제4회 이민자 사회통합 공모전 기초질서 지키기

수상작품집

2016.6.15.(수)~8.29(월)

건강한 사회속, 건강한
국민의, 건강한 생활!
건강사회운동본부가
함께합니다.



제4회 이민자 사회통합
공모전 기초질서 지키기

수상작품집



2016.6.15.(수)~8.29(월)

제4회 이민자 사회통합
공모전 기초질서 지키기
수상작품집

Contents

1. 인사말	03
2. 심사평	04
3. 공모전 소개	05
4. 작품응모 현황	05
5. 심사위원 명단	06
6. 수상자 명단	07
7. 공모전 수상작품	08
» 포스터 부문	08
» 동시 부문	14
» 글짓기 부문	20
» 미디어 부문 (웹툰, 영상)	31
8. 전시회 사진	34
9. 시상식 사진	35



01 인사말



과거와는 달리 부족함보다 풍족함에 익숙한 우리들입니다. 생활이 풍족해진 만큼 우리의 의식 수준 또한 상향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부족했던 시절 보다 더 불안해하며 근심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활은 어떠신지요, 건강하신지요?

배려와 존중의 기본은 “역지사지”입니다. 교통질서 지키기, 공공 장소에서 예의 지키기, 보행 중,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하기, 노약자 배려하기 등 배려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현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미덕은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아닌 ‘우리’를 생각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덧 4회를 맞이한 『이민자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은 법무부와 행정자치부의 후원 아래 전시회를 포함하여 여느 때보다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뻗어있는 이기주의, 현대인들의 소통의 부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편견 및 차별 대우 등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 점들을 배려와 존중, 관심과 책임감 ‘기초질서 지키기’라는 주제에 내포시켰습니다.

이 공모전을 통하여 아이들이 보다 나은 세상에서 꿈을 키우길 희망합니다.

이번 4회 공모전에서도 800여 점이 넘는 작품을 보내주신 응모자들에게도 진심어린 감사인사를 전합니다.

우리나라 미래의 주역인 꿈나무들의 작품을 보며, 아이들의 순수성과 창의성에 우리 사회 희망의 불빛이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울러 올해 새롭게 편성된 미디어(웹툰, 영상, 스톱 모션) 부문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4회 이민자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참여해 준 모든 초등학생 참가자분들, 공정한 심사를 맡아주신 심사위원진, 최종 수상작품 발간까지 잘 이끌어 준 건강사회운동본부 운영진들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 한 해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고 내년 5회 공모전으로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 수 구

02 심사평



“이민자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이 올해로 벌써 4회를 맞이하게 되어 이제는 건강사회운동본부의 대표적이고도 중요한 행사로 자리매김하는 것 같아 심사위원장으로서 마음이 뿌듯합니다.

특히나 시, 글짓기, 포스터 부문이 점점 그 형식이나 완성도에서 전반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공모전 횟수가 더해 질수록 양적,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대상을 받은 주형연 학생의 ‘보행 중 핸드폰 사용은 눈 뜬 장님입니다’라는 포스터 작품은 지금까지 4회 공모전 작품 중 최고의 작품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구성, 아이디어 등 모든 부분의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이었습니다.

시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배다윗 학생의 작품 ‘줄 서기’는 표절검색을 했을 만큼 창의력과 표현이 뛰어났습니다. 글짓기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최운서 학생의 ‘자전거의 얼굴’은 일상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소박하게 담아내어 여타 꾸며낸 듯한 이야기들과 차별되어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부문(웹툰) 최우수상을 받은 임천순 학생의 ‘휴대폰은 살인자’는 휴대폰을 의인화 시킨 내용의 웹툰으로, 그림 실력이 뛰어나진 않지만 스토리 면에서 아이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의 아이디어라 생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미디어 부문이 디지털 시대의 탈 문자화에 발맞춰 캠페인에 효과적인 영상, 웹툰을 포함한 미디어 부문을 처음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첫 회이고 초등학교 대상이라 아직까지 응모작품이 눈에 띄게 많지는 않았지만 회가 갈수록 재능 있고 반짝이는 작품들이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매년 심사위원장으로서 건강사회운동본부의 공모전은 다른 여타의 공모전과는 다른 특징점이 있음을 자부합니다. 현재 재능 있는 아이들의 발굴을 넘어서서 그 누구도 보지 못한 그들만의 가능성을 발견해주는 공모전이라는 것에 의미를 둡니다.

우리 공모전을 통해 아이들이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여 문화예술인을 넘어선 건강한 사회의 각계각층 인사로 자리매김하기를 꿈꿉니다.

수상자들에게 한번 더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800여 점이라는 많은 작품을 보내주신 참여자분들에게도 응원과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위원장 김 연 수

03 공모전 소개

“배려와 존중, 관심과 책임감 우리가 지키는 질서의 기초입니다.”를 주제로 올해 4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가정, 새터민, 일반가정 어린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기초질서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년기부터 생활 속 작은 기본을 지키면서 성장하도록 하는 건강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기 간: 2016. 6. 15(수) ~ 8. 29(월)
- 공모대상: 전국 초등학교
- 공모부문: 포스터, 동 시, 글짓기, 미디어(웹툰, 영상, 스톱모션)
- 공모내용: 보행 중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와 같은 법과 질서, 약속과 신뢰, 배려 등 기본을 실천하는 내용을 주제로 한 작품

04 작품응모 현황

구분		응모작품
포스터		251
동 시		439
글짓기		108
미디어	웹툰	29
	영상	1
합 계		828

- 다문화가정: 377작품
- 일반가정 : 451작품

05

심사위원 명단

시 부문	김 연 수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 드라마전공 석사 모스크바국립대학교(엠게우) 세계문학이론/문예미학 박사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부 교수 2004년부터 현재 TV, 라디오에서 문화평론가로 활동.
	이 지 호	단국대 언론홍보학 (사)여성유권자협회 대학생기자단장 분당 서울대병원 前홍보팀 성빈센트병원 홍보팀
포스터 부문	김 성 훈	2000년, 2001년 경인 미술관 전시 화가 LG 생활과 건강 CF 아트 디렉팅 LG전자, 삼성전자, D&G ARTWORK 못된고양이 아트디렉터 VMD 前 팀장
	한 덕 호 배우	단국대학교 연극영화과 전공 연극: 사랑의 헛수고/무명/결혼/자유로울순없나요/우리읍네 영화: 단편-등대지기/NAÏVE-DAYZ/몽중인/누가쌌노? 드라마: SBS 달콤한 나의도시-최대리역
글짓기 부문	박 지 영	단국대학교 영문학/국문학전공,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영상문화학 전공(문학석사) (주)디지털에블루션 공공PR 전략커뮤니케이션팀 前 팀장 영화제작자 겸 프로듀서 그림심리상담사
	김 동 일 배우	세종대 문화예술콘텐츠대학원 공연예술학 석사 졸업 여성국극 주최, 주관 하에 연극분야 지도자상 수상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연극분야 예술인강사 서울예술실용전문학교 교수

06

수상자 명단

구분	부문	이름	학교	학년 반	작품제목
대 상	포스터	주형연	고양화정초	5학년 3반	보행 중 핸드폰 사용은 눈 뜬 장님입니다
최우수상	글짓기	최윤서	송라초	3학년 1반	자전거의 얼굴
	동 시	배다윗	광양중진초	3학년 3반	줄서기
	미디어 (웹툰)	임천순	안산선일초	3학년 1반	휴대폰은 살인자
우수상	포스터	소서현	성수초	4학년 1반	화를 부르는 밤의 멜로디
	포스터	김나연	창신초	2학년 2반	하나되는 다문화
	글짓기	추진성	안산진흥초	6학년 3반	실천이 관심과 습관으로
	글짓기	이다현	화성금곡초	6학년 7반	배려의 사진기
	동 시	한아름	광양중진초	2학년 2반	스마트폰
	동 시	이봄	제주삼화초	2학년 4반	예쁜 어른이 되고싶어요
장려상	포스터	강주현	보라매초	6학년 4반	낭떠러지여도 그냥 건너시겠습니까
	포스터	남은주	일산초	6학년 2반	잘못된 습관이 공공질서를 무너뜨린다
	글짓기	이병호	안양부안초	4학년 1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지 않는다면
	글짓기	강세레나	안산선일초	5학년 2반	배려
	동 시	장정훈	팔롱초	2학년 1반	바꿔보세요
	동 시	정채원	안산원곡초	3학년 4반	계단아 미안해
아이디어상	미디어 (웹툰)	박지우	화성학동초	6학년 3반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자제
	포스터	환미사	안산원곡초	6학년 2반	젓가락과 같은 우리
	동시	박찬술	안산선일초	1학년 2반	나쁜 스마트폰
격려상	미디어 (영상)	이소율	장위초	2학년 4반	사랑의 운전대

대상

보행 중 핸드폰 사용은 눈 뜬 장님입니다.

주형연 고양화정초등학교 5학년 3반

눈은 떠있지만 감고 다닌다는 뜻으로,
눈 뜬 장님으로 비유해서 표현했다.

우수상

화를 부르는 밤의 멜로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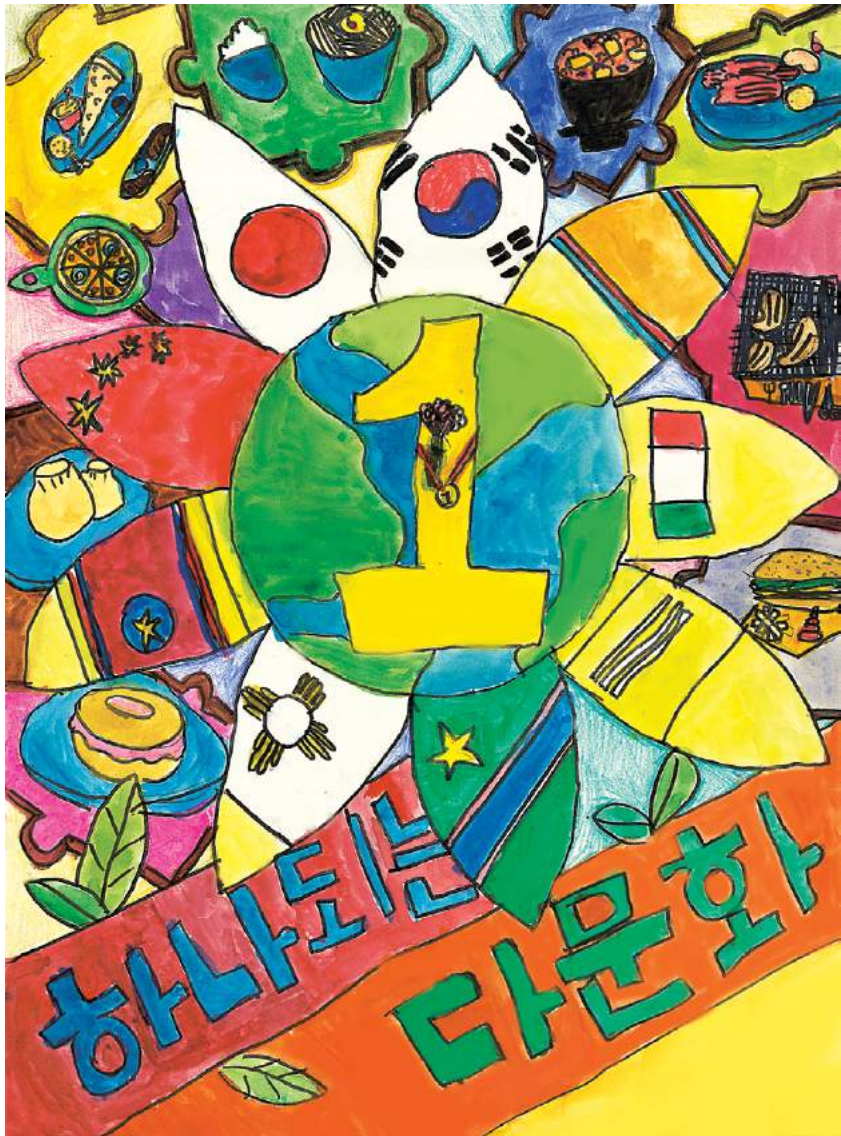
소서현 성수초등학교 4학년 1반

자야할 시간에 들리는 소리는 멜로디가 아닌 소음이기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렸다.



하나되는 다문화

김나연 창신초등학교 2학년 2반
모습과 습관, 음식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함께예요.



낭떠러지여도 그냥 건너시겠습니까

강주현 보라매초등학교 6학년 4반
무단횡단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고, 반드시 횡단보도로 건너야 안전하다는 것을 표현했다.





잘못된 습관이 공공질서를 무너뜨린다

남은주 일산초등학교 6학년 2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와 불편함을 준다는 내용



젓가락과 같은 우리

환미샤 안산원곡초등학교 6학년 2반



〈작품해석 및 심사평〉

젓가락은 "따로 또 같이"라는 생각을 보여주는 가장 적합한 주제이다. 아이의 상상력이 아이디어가 되어 젓가락을 통해 사회의 문제를 적절하게 꼬집었다. 물론 포스터의 형식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완성도 부분에서도 의심이 많은 작품이다. 하지만 젓가락 하나에도 장애인과의 사회협력 부분을 너무나도 꼼꼼하게 그려냈다. 아이의 눈에는 "다르다는 것은 편견일 뿐이다". 그런데도 세상은 쓰임새를 못하는 젓가락같이 장애인을 대하고 있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차별과 편견이 없어야지만 두 짝의 젓가락처럼 제대로 돌아가는 세상이 된다는 아이의 생각이다. 서로 손을 잡고 같이 나갈 때 적절한 세상이 만들어진다. 작은 아이디어는 아이의 생각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이 아이의 그림을 처음 볼 때 손에서 그림을 놓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그림이 새롭고 작은 의미가 되어서 다가왔다. 거친 터치와 아무것도 아닌 색 선택과 흐트러진 아이콘들이 마음에 꼭 와 닿았다. 아마도 그 순간 아이와 잠깐 교감을 한 듯 재밌었다. 이 아이가 성장할 때 즈음에는 차별과 편견이 없는 세상이 만들어졌으면 한다. 또한 아이의 성장을 응원하고 싶다. 시간을 가지고 그림을 봐 주길 바란다.

- 포스터 부문 심사위원 김성훈

줄서기

친구와 밖에서 딱지 치기를 하였다.
줄지어 선 딱지는
우리를 차례로 줄을 세웠다.

후~~딱 딱지야 넘어가라
드디어 내가 땀다.

휘 파람 불면서 오는 신호등 길에서도
나는 줄을 섰다.

스마트폰

아침부터 드룩 드룩
누가 왔나 문 열어도 없네.
범인은 스마트폰

밥 먹을 때도 까뚝 까뚝
자기도 밥 주라고 자꾸 부르네.
자꾸 보라는 스마트폰

저녁에 잠들려고 하는데
자꾸 손이 가네.

아빠가 나보고
중독이라네.

중독 싫어
넌 부터는 진짜 친구를 사귀어야겠다.



예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제주삼화초등학교
2학년 4반 이 봄

길에서 담배 피는 아저씨!
코가 킁킁 목이 따끔
담배 연기 싫어요.

쓰레기 버리는 아줌마!
뒤죽박죽 분리수거
파리 윙윙 벌레가 꿈틀
냄새나서 싫어요.

무단횡단하는 언니들!
아슬아슬 두근두근
무서워서 싫어요.

욕하면서 걷는 오빠들!
눈이 찡긋 얼굴이 찡글
귀가 아파서 싫어요.

예쁜 것만 보고 싶어요.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요.
마음 편히 걷고 싶어요.
즐겁게 놀고 싶어요.

저를 보호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바꿔보세요



팔룡초등학교
2학년 1반 장정훈

뭉글뭉글 담배 말고 사탕 물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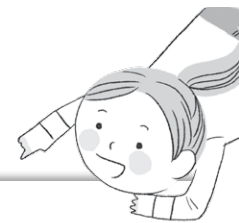
비틀비틀 과음 말고 시원한 물 마셔요

삐삐 삐삐 욕하지 말고 예쁜 고운 말 쓰세요.

주먹 세다 자랑 말고 토닥토닥 안아줘요

하나만 바꿔도 하하 호호 즐겁게

하나만 바꿔도 히히 하하 즐겁게





계단아 미안해

계단아, 미안해
계단아, 미안해

내가 내가 매일 밟고 뛰어다니고
친구들이 장난치고 다치고
질서를 안 지켜서
다 내 탓이야

정말 정말 미안해
이제부터 뛰지 않고
장난치지 않고
다치지 않게 조심할게

계단아 정말 미안해!



안산원곡초등학교
3학년 4반 장채원



나쁜 스마트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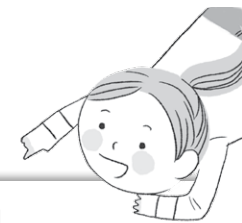
우리 가족이 잠든 늦은 밤
탁탁탁 반짝반짝
우리 형아에 스마트폰 소리
잠들지 못하는 우리 엄마에 잔소리

우리 가족이 잠든 늦은 밤
톡톡톡 라라라
우리 누나에 스마트폰 소리
잠들지 못하는 우리 아빠에 짜증 난 잔소리

우리 가족이 일어난 이른 아침
쿨쿨쿨 드르렁
아직 꿈나라인 우리 형아 누나
우리 형아 누나를 잠꾸러기로 만드는 나쁜 스마트폰
잔소리꾼으로 만드는 나쁜 스마트폰
너! 정말 밉다!



안산선일초등학교
1학년 2반 박찬솔



자전거의 얼굴



송라초등학교
3학년 1반 최윤서

학교가 끝나고 교문을 나서려는데, 따르릉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려보니 비오가 자전거를 타고 교문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햇빛에 반짝이는 비오의 자전거는 새것처럼 멋져 보였다.

“비오야, 자전거 새로 샀어?”

“응. 아빠가 시험 잘 봤다고 사 주셨어.”

비오는 내 눈치를 보면서 대답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번 시험에서 비오보다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시험 점수에 비오의 새 자전거까지. 짜증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내 몸을 덮었다. 부러운 마음과는 다르게 나도 모르게 욕이 나왔다.

“아휴, 재수 없어. 잘난 체 하는 너랑 친구 안 해!”

난 토라진 채 비오의 자전거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달렸다. 분명히 자전거가 나보다 빠를 텐데 비오의 자전거는 나를 앞질러 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니,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너무 힘들었다.

“헉헉!”

얼굴이 빨개진 나를 보고 할머니께서 깜짝 놀란 눈으로 물어 보셨다.

“윤서야, 무슨 일 있니?”

“아니요. 할머니가 무슨 상관이에요?”

나의 속상한 마음을 괜히 할머니에게 풀어 버렸다. 방으로 들어가 나는 컴퓨터를 켰다. 짜증이 날 때는 게임이 최고다. 나는 신나게 인터넷 게임을 하고 있었다.

그 때 전화가 왔다. 화면에는 ‘절친2 잠윤’이가 밝게 웃는 모습과 함께 떴다. 절친1은 비오. 절친2는 잠윤이다. 우리 셋은 삼총사다. 그런데 오늘 절친1인 비오에게 화를 내면서 절교를 선언했던 것이다. 그래서 잠윤이의 전화를 바로 받을 수가 없었다. 분명히 잠윤이는 비오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윤서야, 비오가…….”

“됐어. 듣기 싫어!”

그럴 줄 알았다. 나의 예상대로 잠윤이는 비오랑 화해를 하라고 말하려는 것이다.

“비오가 사고 났다고!”

“뭐라고?”

너무 놀라서 한 손으로 쥐고 있던 마우스를 떨어뜨렸다.

“비오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대!”

할머니께 말씀드리고 나는 비오의 집으로 갔다. 비오는 팔에 깁스를 한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았지만, 한 달 동안 오른쪽 팔을 쓸 수 없을 거라고 했다.

함께 간 잠윤이는 유난을 떨면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물어보았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넘어졌어. 차가 안 와서 빨간 불일 때 재빨리 건너려고 했는데, 차가 오는 거야. 너무 놀라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어. 다행히 차가 멈추어 주어서 크게 다치지 않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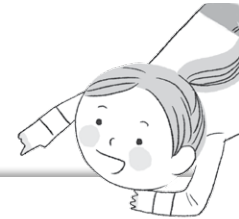
비오는 나를 힐끔 쳐다보면서 말했다. 나도 비오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다.

“혹시, 비오야…….”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나를 잡으려고 빨간 불일 때 건넌 거야?”

비오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화를 내고 달려갔기 때문에 비오가 빨간 불일 때 건넌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 미안했다. 눈물이 났다.



마침 간식을 들고 오신 비오의 엄마가 나를 보면서 말씀해 주셨다.

“윤서 잘못 아니야. 신호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길을 건넌 비오의 잘못이지.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를 타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비오가 지키지 않은 거야.”

비오는 엄마의 꾸지람에 고개를 푹 숙였다.

“그래도, 저 때문에…….”

“아니야, 윤서야! 내가 신호등을 잘 지키고 자전거 도로 규칙을 잘 지켰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네 잘못 아니야.”

비오의 말에 눈물이 쏙 들어갔다.

“그리고 보니, 자전거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거네. 우리를 신나게 태워줄 때는 천사의 얼굴! 우리가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악마의 얼굴!”

“자전거의 두 개의 얼굴은 우리의 약속지킴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비오와 나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같은 말을 했다. 역시 우리는 둘도 셋도 없는 절친 삼총사다.

실천이 관심과 습관으로

안산진흥초등학교
6학년 3반 추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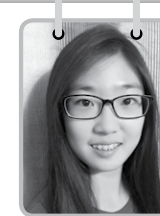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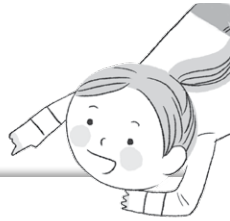
기초질서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꼭 지켜야 하는 걸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다. 최근 그 사람들 속에 우리 가족이 포함된 일이다. 강원도로 여름휴가를 다녀왔었는데 얼마 전 과태료 고지서가 우편으로 왔다. 아빠께서 좌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라고 했다. 평소 내가 지켜본 아빠는 과속도 절대 하지 않고 천천히 안전 운전을 하시는데 이번에 진짜 일어나지 않아야 했던 일이 순간의 실수로 일어난 것이다. 사고가 안 일어나 다행이지만 과태료를 보면서 너무나 아까웠다.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것을 살 수 있는 만큼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커서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작은 신호도 철저히 잘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 일로 난 다시 한 번 꼭 지켜야 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다.

요즘 학교 앞을 지나갈 때면 “스쿨존”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도 보지 않고 무조건 달리는 차들이 있고 신호도 무시하고 가 버리는 차들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한다. 차도 그렇지만 보행자도 한 조금 더 빨리 가려고 신호등을 무시하고 건너기도 한다.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 앞이라도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연지역이 많아지고 있는데도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담배꽂초가 길바닥에 버려져 있는 걸 보게 된다. 담배연기를 피해 빨리 뛰거나 얼굴을 돌리고 지나간 적도 있었는데 숨이 막히고 머리도 아팠다. 우리가 담배를 피우지는 않지만, 간접흡연이 된다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서 피한다. 어떤 경우이던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우리 어린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담배꽂초 말고도 휴가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바닷가나 관광지에 쓰레기들이 많이 버려져 있었다. 이것 때문에 배기가스에 이종으로 환경오염이 심해지고 있다. 강의 물고기들이 죽고, 병든 물고기를 먹는 새들이 또 죽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나도 야구 관람을 하다가 쓰레기를 계속 들고 있으니 귀찮고 지저분해 그 자리에 두고 온 경우도 있어 부끄럽지만 그것을 보면서 귀찮아도 휴지통에 넣거나 스스로 다시 가져가는 생활습관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로 갈 일이 있었는데 지하철이 서면 내리기도 전에 막 들어와 빈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부딪치는걸 봤다. 우리들도 급식을 받으러 갈 때는 선생님께서 번호순대로 순서를 정해주셔서 뛰어나가지 않고 질서를 지키는데 어른들은 조금 불편한 것쯤은 더 배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 최근에 외국인을 상대로 택시비를 훨씬 더 받는 택시기사들이 있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내가 한 행동이 아니지만 부끄러웠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손님에게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남기게 하는 사람들은 택시기사라는 직업을 가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른이 되어서 그런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서 왜 어른이라고 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가 지키지 못한 기초질서가 혼자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고 그 피해는 우리를 안전하지 않게 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또 크게는 우리나라를 창피하게 만들기도 한다.

기본을 지키지 않고 생활하면서 왜 스스로 내가 그 때 지키지 않았지? 하는 생각을 하는 어른들은 거의 주변에서 볼 수 없었다. 자신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아서 안 되는데 어른들은 이걸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기초질서의 실천은 관심이다. 관심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지금부터 나라도 먼저 신호를 지키고, 환경을 생각하고, 질서를 지키고, 자리를 양보하는 배려심을 가져보아야겠다. 그것이 실천으로 이어지면 우리 반 친구들이 나를 따라하고 내 친구의 친구가 또 친구의 가족이 같이 동참하면서 내 주위는 도미노 현상처럼 번져갈 것이다.

또 기초질서의 실천은 습관이다. 내 노력으로 실천이 생활하면서 습관이 되어 계속 지켜져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우리나라도 좋지만 우리의 생각이 기초질서부터 실천해서 외국에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두가 실천하는 질서로 인해 아름다운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한다.

배려의 사진기

화성금곡초등학교
6학년 7반 이다현

나는 방학을 맞아 외할머니 댁에 놀러 가서 지하철을 타고 가며 동생과 수다를 떨고 있던 중이었다. 모르긴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은근히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이다.

곧 ‘이번에 내리실 분은’ 하는 안내 방송이 들려왔다. 나는 아직 우리가 가게 될 곳까지는 한참 남았다는 할머니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시 동생과 열심히 수다를 떨었다.

방송 후 지하철 문이 덜컥이며 열렸고 몇몇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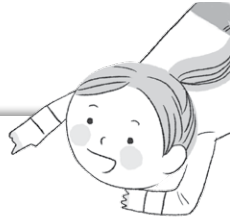
그런데, (지하철이 종종 이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아니 들어오는 사람은 콩나물을 한 바구니 담아놓은 것처럼 바글거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매우 피곤해 보였고 앉을 자리를 찾는 것이 꽤나 힘들어 보였다. '후우, 다행이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내 마음속은 안도감으로 차올랐다.

내가 자리에 몸을 딱 붙이고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키고 있던 때였다. 앉을 자리 찾는 것이 급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어렵게 자리를 잡은 다른 사람들도 다르지 않아 보였다.

그런데 그 순간, 어떤 임신부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시는 것이 아닌가? 나는 깜짝 놀랐다. 다른 사람들도 그쪽을 힐끔거렸다. 놀란 건 양보 받은 당사자, 그 할머니께서도 마찬가지였다.

“아니, 괜찮아요. 앉아 계슈.” 할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하셨지만 그 임신부는 “아뇨, 저 곧 내려요. 할머니 앉으세요.”라고 하며 할머니를 향해 싱긋 웃어 보였다.

나는 정말 놀랐다. 그 순간, 내 마음 속 한구석에 있던 ‘배려의 사진기’가 “찰칵” 소리를 내며 그



장면을 찍어두었다.

내 마음속 배려의 사진기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다른 자리에 앉아 있는 어떤 한 오빠의 모습도 찰칵 찍었고 마지막으로 내 자신의 모습을 카메라에 맞추더니 셔터를 눌렀다. 세 장의 사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는 방금 찍힌 사진을 정리해 보기로 했다. 아까의 상황으로 놀란 내 마음을 정리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다.

첫 번째 사진. 임신부의 자리 양보 모습이었다. 그 사진 밑에는 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자신이 임신부여서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 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존재를 위해 배려의 손길을 내민 사람’

두 번째 사진은 자리에 앉아 핸드폰을 두드리던 한 오빠의 모습.

그 사진은 약간 흐릿했다. 그 밑에 적힌 글씨 역시 흐릿하였다.

‘무관심한 사람. 남이 힘들어하든 아니든 자신의 일만 신경 씬.’

마지막 세 번째 사진은 제일 보기가 떨리는 것이었다.

바로 내 모습이었으니까.

사진은 굉장히 흐려서 제대로 볼 수도 없을 정도였다. 그리고 간신히 읽어낸 글씨조차도 내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었다.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수다를 떨고, 그 수다에 빠져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조차 읽어내지 못함.’

나는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은근히 부러워할 거라고 생각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던가. 그리고 ‘1차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에 빠져 다른 사람들 돌아 볼 마음조차 없었는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도조차 알지 못 했던 그 ‘배려의 사진기’가 찍어낸 사진을 보니 매우 부끄러웠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처음부터 그렇게 큰 소리로 킁킁떨 이유조차 없었던 것 같다. 그저 신나는 분위기에 휩쓸려 다른 사람에게 피해나 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바란다.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배려의 사진기’로 찍고 있을 때, 적어도 흐릿해서 보지 못할, 그런 사진은 나오지 않기를.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에게 배려의 손길을 내밀 정도의 여유는 가지고 이 세상을 둘러보기를. 그렇게 하나하나가 이 세상을 배려의 눈길로 여유를 가지고 따스하게 둘러볼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서로가 행복하게 웃으며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이룩하게 될 것이다. 이 작은 배려의 사진기가 나 하나에게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양심 혹은 나눔, 베품이라는 따뜻한 무언가에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온몸에 고스란히 녹아 있을 수도 있다. 무엇에서 비롯되었든 그 ‘배려’라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더하고 더하여 세상을 물들이는 크고 따뜻한 빛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지 않는다면

안양부안초등학교
4학년 1반 이병호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 가족은 아빠, 엄마, 나, 동생 이렇게 4명이다. 4명은 가족으로 참 좋은 숫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사는 대가족은 더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땐 부모님과 동생이 있는 4명이라는 가족 수가 빛나는 구슬 같아 참 좋았다.

그런데 주말에 아빠와 함께 나들이 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다. 문득 나보다 할아버지만 생각하는 아빠가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에겐 올해 81세인 할아버지가 계시다. 할아버지에겐 우리 아빠 외에 딸과 아들이 1명씩 더 있다. 그러나 항상 아빠가 할아버지 모든 일에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신다. 이번 일도 그렇다. 할아버지가 인공관절 수술을 하러 안양으로 오신 것이다. 아빠는 병원에서 계속 주무시고 할아버지를 돌보신다. 할아버지에겐 아빠만 자식이 아닌데 왜 아빠만 모든 일을 해야 하는지 갈수록 속상했다.

며칠 전 아빠가 병원에서 집으로 오셨다. 아빠는 나지막이 할아버지가 아프셔서 가슴이 아프다고 하셨다. 그 말을 듣는 내 맘이 갑자기 찌릿찌릿 따끔거렸다. ‘이거구나.’ 아빠의 아픈 가슴이 무언지 알 것 같았다. 만일 아빠가 할아버지처럼 아프면 내 맘이 지금 아빠 같지 않을까?

나는 학원을 많이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어느 학원에서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경로사상 실천하기를 배우고 있다. 아빠를 보면 경로사상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부모님을 먼저 공경하고 봉양해야 주위 어른들도 공경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집 앞 상가 1층 계단에 우리 할아버지 연세 정도 되시는 분이 매일 똑같은 남색 잠바를 입고 계단에 앉아 계신다. 할아버지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많은 시간을 계단에 조용히 앉아 계신다. 할아버지 댁은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02동에서 나오시는 것을 봐선 아마도 그곳이 할아버지 댁인 것 같다. 할아버지는 아무 일없이 앉아만 계시는데 웬지 난 무서워 다른 계단의

로 갈 때도 많았다.

그런데 우연히 엄마가 그 할아버지께 우유를 드리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다. 놀라웠다.

“엄마, 아는 할아버지세요?”

“아니”

“근데, 왜 우유를 드려요?”

“점심시간인데 식사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 할아버지도 누군가에겐 귀한 아들이었고 소중한 아빠일 거야.”

놀라웠다. 그 할아버지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난 생각하지 못 했다. 며칠 후 난 큰 용기를 냈다. 할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들고 있는 과자를 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말이 목에 걸린 것인지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서성거리다 난 “할아버지, 이것 좀 드세요.”라고 했다. 그때 할아버지 입가에 살짝 웃음이 번지는 것을 보았다. 난 가슴이 백 미터를 달린 것처럼 뛰기 시작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내 주위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이런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일 우리 부모님이 나와 동생만 챙기고 귀하게 여기며, 할아버지나 외할머니 그리고 주위 어른들에게 나 몰라라 하며 말로써 경로사상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면 내가 받는 사랑과 관심이 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처음부터 내 것인 것을 받는 것으로 여기며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을 지금처럼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경로사상은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으로 옛날부터 사회 전반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 누구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과연 실천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머리로 아는 많은 사람들이 몸으로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 가끔 지하철을 탈 때마다 큰형이랑 누나들 그리고 또 다른 어른들은 할아버지, 할머니께 자리 양보를 하지 않는 것을 보며 이상했다. 이론으로 아는 경로사상과 몸으로 실천하는 경로사상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이상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만큼 경로사상을 실천한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휴지를 줍는다면 그 주위 다른 사람들도 휴지를 줍는 것처럼 나 먼저 경로사상을 실천한다면 내 주위 많은 사람들도 경로사상을 실천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난 내 부모님과 주위 어른들을 공경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 아무리 잘 알고 있는 경로사상이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아는 만큼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배려



안산선일초등학교
5학년 2반 강세레나

저희들은 노인, 장애인, 친구, 한국어를 모르는 분들에게 배려를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노인분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있으면 같이 들어주며 버스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배려하며 자리를 내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넘어져서 이 지구에 다친 사람이 많은데 그중 1명이 더 다치게 됩니다. 할머니들이 많은 일을 할 때는 한 명이라도 한 번쯤은 배려해주세요.

그리고 다음으로 장애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장애인분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있습니다. 장애인분들은 많이 아프신데 몸과 마음이 더욱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이 되어 배려해야 합니다.

저희는 배려해주는 도우미입니다! 힘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희들 모두가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고 1분이라도 상상하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저라면 아프고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장애인들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해 보세요.

그렇다면 저희 '배려' 이 한마디로 시작해봅시다. 도와주는 1분은 그 장애인들에게는 1시간입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랍니다. 친구들은 학교에서 다칠 때 옆에 있어주고 왕따시키지 않고 친구를 배려해요.

왕따 친구들은 한 가지를 원합니다. 친하게 지내는 것. 그거면 100시간이 1초라도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먼저 다가가 배려하면 모두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같이 배려합시다. 모두 같이 배웠지만 한국어를 모르는 친구들에게 배려합시다. 그 아이들은 한국어를 배우려면 100일이나 더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한 번이라도 배려하고, 도와주면 큰 힘이 된답니다.

다문화 배려는 작은 것입니다. 모두가 배려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 도와주는 직업이랍니다. 모두 배려, 모두 같이 힘든 사람에게 배려!

미디어 웹툰 부문 수상작



휴대폰은 살인자

임천순 안산선일초등학교 3학년 1반





미디어 웹툰 부문 수상작



윤전중 스마트폰 사용 자제

박지우 화성학동초등학교 6학년 3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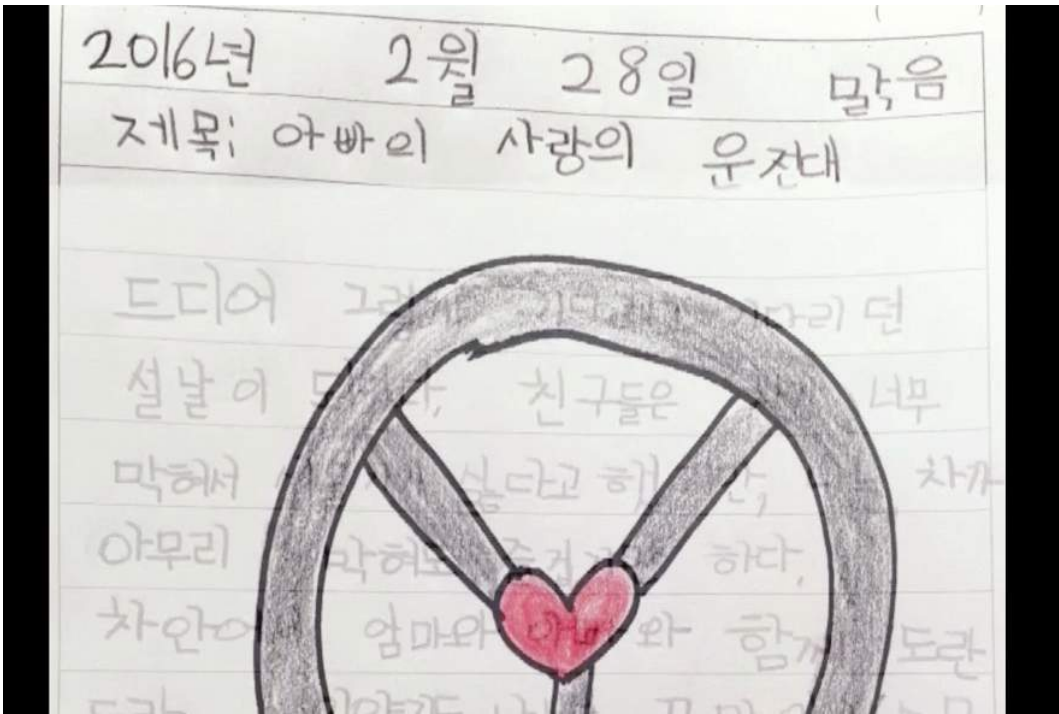


미디어 영상 부문 수상작



사랑의 운전대

이소율 장위초등학교 2학년 4반



* 수상작품 영상 보기
URL주소: <http://www.youtube.com/watch?v=QKLUyrb029E&feature=youtu.be>
(유튜브 사이트에서 건강사회운동본부, 사랑의 운전대로 검색)



08 사진으로 보는 이민자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 전시회



09 공모전 시상식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소개

‘개인이나 가정, 사회나 국가도 건강하지 않고서는 성장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대한민국의료계 단체들(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이 2008년 11월 연대하여 ‘건강한사회 만들기운동본부’를 설립하였습니다. 국민건강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보건의료단체가 연대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선진화된 시민문화 육성을 위해 건강한사회만들기 캠페인을 시작하였고 그 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화하기 위해 2011년 3월 법무부 산하 (사단법인)건강사회운동본부로 발족하였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위해 전문가 집단인 보건의료단체는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전문가 조직으로 국민에게 친숙하면서도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비롯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는 통일된 주제 구현을 실천하기에 적합하고 특히 ‘건강’이라는 부분은 보건의료단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캠페인 진행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유리합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은 건강한 가정과 사회, 세계로 이어지며 이는 곧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커다란 밑거름이 될 수 있으므로 건강사회운동본부에서는 몸·마음·가정·세계의 건강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캠페인·공모전·홍보물 제작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한 시민사회의 근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제4회 이민자 사회통합 기초질서 지키기 공모전

발 행 일 | 2016년 12월

발 행 인 | (사)건강사회운동본부 이사장 이수구

발 행 처 | (사)건강사회운동본부

후 원 | 법무부, 행정자치부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20길 23, 501(무교동, 원창빌딩)

전 화 | 02-3789-0041, 2286

팩 스 | 02-3789-0042

홈페이지 | <http://www.건강한사회만들기.org>

디 자 인 | 진애드 02-2264-0608